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TV programs like '관찰카메라', 'KBS 뉴스광장', 'MBC 뉴스투데이'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김수현(사진왼쪽)·전지현

눈을 땔 수 없는 '별그대'

SBS '별에서 온 그대' 시청률 24.6%... 매회 최고 기록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이하 별그대)가 과연 어느 정도 높이 솟은 방송계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전지현과 김수현, 두 스타가 만나 그려내는 운명적인 판타지 로맨스에 대한 안방극장 시청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3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별그대'의 6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4.6%, 수도권 기준 27.8%로 집계됐다.

'상속자들' 후속으로 지난달 18일 첫 방송된 드라마는 15.6%로 출발해 4회 만에 20%를 돌파했고, 최근 방송된 5.6회에서 연달아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방송이 매번 화제를 일으키며 화가 거듭할수록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전작의 화제성을 얼마간 이어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20%를 '쉽사리' 넘긴 것은 고무적이다. '상속자들'은 마지막회에서 최고 시청률 25.6%를 기록했다.

'별그대'의 기록은 아직 10%를 넘기지 못한 다른 지상파의 동시간대 경쟁작 두 편을 합한 시청률 수준의 두 배라는 점에서도 그 위세가 감지된다.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통적인 설정을 활용하면서도 각 요소에서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유지함으로써 애절한 '인연'의 이야기에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데 성공했다.

◇ 전지현·김수현의 눈부신 매력 = 드라마의 감정은 무엇보다 두 주연 배우의 매력에 있다. 1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전지현은 자신의 실제 스타성을 뼈다박은 톱스타 '천송이'로 분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SNS에서 무식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이나 유람선 결혼식장에서 '개불'을 찾는 털털한 모습, 엉망으로 운전하며 자기도취적인 랩을 하는 모습 등 그의 '업기적인' 연기는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도배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다.

'업기적인 그녀'(2001) 이래 이어져 온 그 특유의 캐릭터와 퀘를 같이하면 서로 어느새 원숙미와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는 평가다. 특히 걸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스타의 남모름 아름다움에 대해 천송이가 털어놓을 때는 마치 실제 톱스타 전지현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몰입도를 높인다.

전지현은 지난 달의 제작발표회에서 "천송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 있었다"며 "딱 저 같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기 경력으로는 후배이지만 파트너인 김수현의 활약도 눈부시다. 25살의 나이에 400살이 넘는 남자 도민준을 연

기하는 그는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음성과 안정된 연기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 촘촘한 구성과 흥미로운 소재 = '별그대'는 전통적인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Cliche·상투적인 표현법)를 따르면서도 색다른 요소를 넣어 이야기를 비틀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스타와 일반인', '사한부', '공주를 구하는 왕자'는 이미 많은 작품에서 반복된 설정이다. 하지만 '별그대'는 외계인이나 환생, 초능력과 같은 판타지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야기의 결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 화상을 통해 조선시대, 천송이의 유년 시절, 현재 등 다양한 시절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주인공의 오랜 '인연'의 고리를 조금씩 풀어놓아 흥미도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시청자는 드라마의 구성이 탄탄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소재의 측면에서도 연예계의 속성을 세밀하게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천송이의 성공과 추락, 그리고 그를 둘러싼 팬과 다른 연예인, 소속사, 언론의 시골 박적한 합주는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연기 경력으로는 후배이지만 파트너인 김수현의 활약도 눈부시다. 25살의 나이에 400살이 넘는 남자 도민준을 연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코어콘텐츠 "이승철, 음원 무단 사용" 주장

음원 수익 단독 정산 등 유통업계 질서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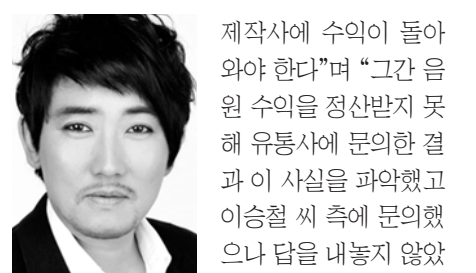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코어콘텐츠)는 6일 이승철(사진)과 그의 앨범을 제작한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앨범을 제작한 코어콘텐츠는 "이승철 씨가 자신이 부른 '에덴의 동쪽' OST 곡 '듣고 있나요'(2008)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2009)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는 이어 음반유통사인 CJ E&M에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음원 수익을 단독으로 정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어콘텐츠 관계자는 "이승철 씨는 OST 참여 당시 가장료를 받아 음원 권리를 가진



이승철

제작사에 수익이 돌아와야 한다"며 "그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해 유통사에 문의한 결과 이 사실을 파악했고 이승철 씨 측에 문의했으나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통 업계 질서를 무시한데 대해 최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Age, Zodiac, Fortune. Provides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and ages.

TV 하이라이트

92세 박정희 할머니의 건강비법



장수의 비밀(EBS·밤 10시45분)=인연 화령동의 한 골목, 변화가 크게 그려진 집에, 수채화를 그리는 박정희(92) 할머니가 살고 있다. 현관에서 별을 쪼며 글을 쓰고 있는 그녀의 주인공, 왓치에서 사름지 않은 할머니인 것 같다. 현지 화가의 집담게 꽃과 수채화들이 곳곳에 가득한 집안. 그 수채화들보다 화사한 92세 할머니의 인생이 궁금해진다.

할머니 집 깊숙한 곳에 가족들의 보물이 있다. 종이 귀하던 시절, 어렵게 종이를 구해 오남매의 육아일기를 썼다는 할머니. 60년이 넘어 너털너털해진 이 육아일기가, 가족들에 가보처럼 귀한 물건이라고 한다. 지우고 싶은 순간 없이 지난날들이 항상 '기쁜 날'이었다는 박정희 할머니의 건강 비법을 소개한다.

소토스 증후군 걸린 8살 민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MBC·오후 5시35분)=여덟 살 민주의 외모는 또래와 다르다. 미숙이로 태어나 호흡곤란과 안면기형, 연하후두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던 민주. 그 후 아빠-엄마는 민주가 소토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료 방법조차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대뇌성 거인증이라고도 불리는 소토스 증후군은 태어난 지 1~2년 동안 신체 과다 발육을 보이며 특징적인 얼굴 모양, 지적장애, 척추측만증, 수두증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 민주 역시 수두증 수술은 물론 100도 가까이 휘어버린 척추가 폐를 눌러 두 번의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아야 했다. 엄마는 지난 8년 동안 민주를 견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민주를 위해 살아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가치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개통된 '나진~하산 간 철도 교통망'은 물론 현대화된 나진항을 이용해 복합물류 통로를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해 우리 화물을 싣값에 유럽까지 운송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북방이 몰려 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이 북방지역과 협력함으로써 얻는 전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심층 조명한다.